

상암 새천년 신도시 계획 -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

이재근¹⁾ · 신규환²⁾

¹⁾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²⁾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SANG-AM Millennium Newtown Plan and Its Design Concepts of the Outdoor Space

Lee, Jae-Kum¹⁾ and Shin, kyu-Hwan²⁾

¹⁾ Dpt. of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Sangmyung University,

²⁾ Graduate School,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roughout the modernization which was dominated by development theory in Korea, land use planning for housing tended to spoil the environment. Numerous studies, however,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is development-led planning and there was a broader consensus that the past planning was part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of inner city. These observations changed the development-led planning into the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planning. In particula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ld the international planning competition to develop 'Sangam' as an environment friendly residential area. With this plan 'Sangam' would be the sustainable residential area with the harmony of nature, human and technology. Furthermore it would be the outset of the long-term plan to develop 'Seoul' as a 'gate-city, an 'information-city' and an 'eco-city'. To do this, it needs especially the planners' and the constructors' constant concerns and efforts as well as the citizen's participation.

Key Words : *Modernization, Environment, Sustainable, Gate-city, Information-city, Eco-city.*

I. 서 론

2000년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및 월드컵공원사업과 관련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의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천년 신도시(Millennium City) 계획 구상(정보도시, 생태도시, 관문도시)에 적

합한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을 담은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다. 새로운 주거형식 및 다양한 단위세대 개발을 추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하였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서 서울시 주거단지 개발에 선

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부정적인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생태적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창출을 하는데 있다. 필자는 현상공모안에 대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요소를 추출하여 단지외부공간조성계획에 적용 하였다.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이 되기 위하여 자연, 사람, 기술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새천년 주거단지로서 환경친화(자연과 사람의 어울림), 인간친화(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경관친화(관련계획과의 어울림, 신도시 모델정립)가 기본방향으로 제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새천년 신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서 나타나듯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상암 밀레니엄 시티에 적합한 생태도시계획의 개념과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이에 따른 계획개념과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개요 및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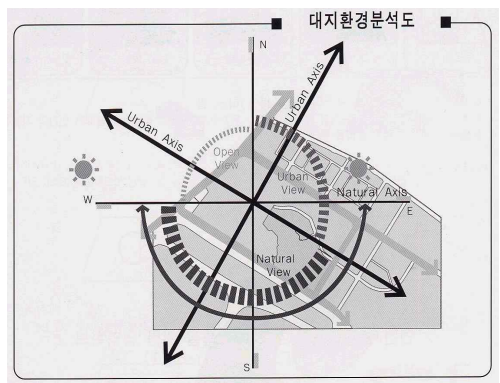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표는 지구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획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초장기 계획을 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지역 특성상 잠재력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고 서울시의 새천년 신도시 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로서 상암지구 택지개발지역(약 117,561평)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제시 및 통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설계방식은 일반공개경기로서 최우수 당선자를 마스터아키텍트(Master Architect)로 지정하고, 전체아파트 단지의 기본계획 설계권을 부여하고 마스터아키텍트를 포함한 입상자로 하여금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마스터아키텍트의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현재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2. 현황분석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의 서남권 지역으로 약 200만평의 대규모 부지로서 서울 도심에서 7km, 신촌에서 4km지점에 위치한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현재 개발이 진중중에 있다. 세계로 열려진 서울의 관문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천신공항 철도 및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제항공교통의 관문으로 통일후 일본 및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속전철의 기착지점 계획이며 서울의 내부순환도로를 통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장래 북한 방향의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차량교통의 요충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친환경주거단지 대상지구내 자연 현황으로는 인접지역에 임상이 양호한 상암산(해발 68.6m)이 입지하고 있는 부지로서 대상지 동/북측은 DMC 지구, 서측은 상암동 개발제한 지역, 남측 난지천 공원이 인접한 지역이고 주변 도로는 대상지 동북측은 DMC 도로, 서쪽은 가양대교와 수색로, 남측 월드컵 경기장과 연결되어 있다. 대지환경분석으로서 축의 설정에 있어서 대지 남쪽의 한강과 밀레니엄 공원, 난지공원 등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연축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축/철도축에 따라 자연축과 연계되어 남동/북서방향의 축과 북동/남서방향의 연결축으로 도시축을 연결하고 대지 동측의 증산으로부터 6호선 상암역-수색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지 서측도로는 가양대교와 수색의 연결을 통한 접근성이 편리하다. 조망축으로는 서쪽의 열린조망은 우수하나 불량 주거지역이나 비닐하우스 등 전망에는 불리한 편이고 남쪽으로는 생태대중골프장과 하늘초지 공원쪽으로는 녹지에 전망이 매우 우수하고 북쪽으로는 수색과 마포방향으로의 도시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1> 대지환경분석도.

Ⅲ. 기본구상 및 접근개념

1. 기본개념

기본 계획의 주제는 자연, 사람, 기술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새천년 주거단지로서 계획의 방향으로서 환경친화, 인간친화, 경관친화로서 생명력 있는 생태마을을 조성함에 있다.

환경 친화(자연과 사람의 어울림)계획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네트워크(network)구축하고 주변 산림과의 생태연결, 지표식물 식재하며 땅이 숨쉬고 물이 흐르는 생태적 기반 조성 <No pavement>을 조성하고 비오톱(Biotop) 및 친수공간(실개천, 분수 등), 자연지반과 녹지를 최대화한다. 단지내 걷기 편하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가로 및 외부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네트워크(network) 구축한다. 에너지 절약은 수자원 보호 및 우수를 활용한 물 순환체계 확립하고 단지내 벽면녹화와 자연안료 사용 <No paint>, 자연에

너지(바람, 물, 태양열 등)를 활용하여 화석에너지 절감한다.

인간친화(사람과 사람의 어울림)계획으로 다양한 활동 및 교류가 가능한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조성(공동체의식 함양)하여 이웃간의 교호증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커뮤니티공간 확보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단지로서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한다.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주환경 조성에는 전통적인 공간구성 및 디자인 요소를 도입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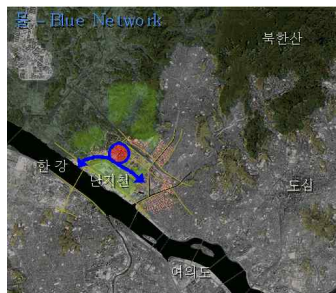
경관친화(관련계획의 어울림)계획으로 주변 지역 및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DMC, 상암산, 밀레니엄 공원)한다. 새천년 주거단지 이미지 고취를 위한 통합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옥외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물, 아치)을 적정 장소에 배치한다.

2. 접근개념

1) 기본구상

자연(Nature) + 인간(Human) + 문화(Culture)가 상생하는 환경친화 주거단지

환경 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연계된 그린네트워크 ■ 단지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블루네트워크 구축 ■ 단지 내 자연풍의 유입, 클린네트워크
인간 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조성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자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경관 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천년 주거단지 이미지 고취를 위한 통합 가로시설물 디자인 ■ 랜드마크 기능의 환경조형물, 미술장식품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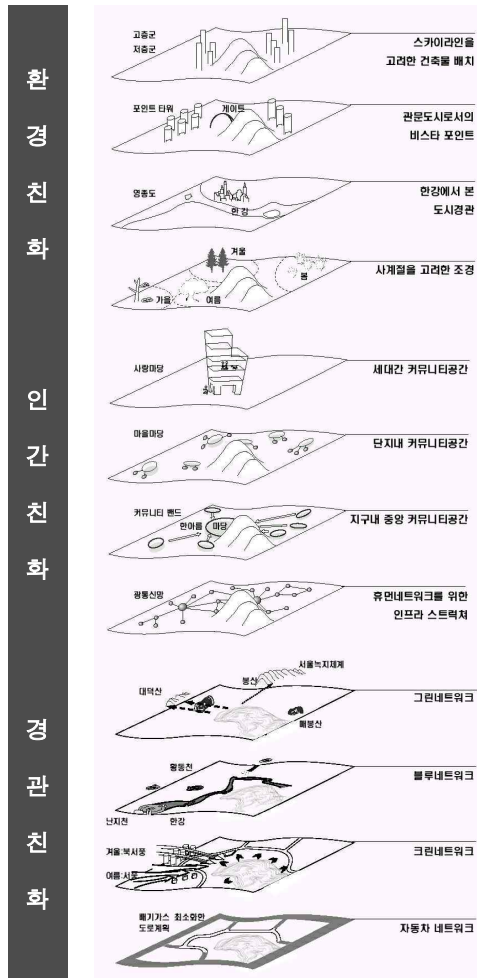


2) 개발구상의 전개
(1) 개발구상

상생에너지='결'
기(氣)+운(韻)
에너지+rhythm

생태의 에너지를 '결'로 해석하며
산결, 물결, 바람결, 숲결, 빛결,
하늘결로 접근

에너지의 '결'과 '결'이 만나면서
나뭇잎의 네가티브 형상을 재현하고
나뭇잎에서 나오는 생태에너지는
동시에 '결'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천년 생태마을 이미지



(2) 개발구상의 전개

기본개념	아이디어	컨셉	색과 향기
환경친화	산결	그린네트워크 서울녹지체계의 유기적 연결 난지도에서 상암산으로의 산의 흐름을 대덕산으로 연결 봉산으로 이어지는 DMC의 녹지대와의 연계 해오름 생태공원/가로공원/다출식재/침투성포장	초록색/참나무
	물결	블루네트워크 수자원보호 및 수순환체계 확립 난지천을 복원하여 갈대가 있는 물오름 길 조성 우수 지하수를 활용하여 난초가 있는 실개천 형성 샘/건천/벽천/유수지/비오톱	파란색/난초
	바람결	크린네트워크 사계절 자연풍 흐름 한강을 따라 난지도와 대덕산 사이에 형성된 골바람을 단지내 유입 바람결을 고려한 단지배치	보라색/들국화

기본개념	아이디어	컨셉	색과 향기
인간친화	숨결 커뮤니티 네트워크 보행자 전용의 한걸 길을 따라 커뮤니티 공간제공 한아름마당/마을마당/사랑마당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생활가로	노란색/나리
	빛결 정보 네트워크 단지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 인포메이션광장/광통신망	도시 인프라의 정보망 형성	흰색/박하
경관친화	하늘결 시티 네트워크 관문도시로서의 비스타 포인트 연출 단지 내외부에서 상암산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인 포인트파워/Y타워형/게이트	상징적이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하늘색/미류나무

IV. 종합계획

1. 기본전략

■ 생태축(軸)-Axis

축의 설정에 있어서는 북한산과 연결되는 서울의 그린네트워크를 한강과 결집시키도록 설정하고 자연생태축은 대상지의 흐름에 순응, 에너지를 결집하고, 발산시키는 효과를 계획하며 DMC(도시축)와 난지도(자연축)의 자연공간 흐름을 따라 확장한다.



■ 네트워크-Network

기존 가로와 도시적 맥락을 수용하는 교통 및 녹지,수공간 네트워크 구상하고 상암산~대덕산의 생태연결하여 서울의 광역녹지체계 구축한다.



■ 에너지-Energy

생태에너지 흐름의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으로 자연에너지의 적극활용,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적인 단위세대평면의 개발한다.



■ 길-Street

상암산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선형계획으로 어메니티(Amenity)로서 남아있는 물길을 복원하여 친수공간 조성 내부도로를 생활공간으로 계획하고 단지, 단지공공공간-주동, 주동-단위세대를 연계하는 길(가로)의 개념으로 확대한다.



2. 계획방향

주변 생태계와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형성으로 생태환경의 적극적 복원 및 보전하며 합리적인 환경친화적 수법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방법 및 주거환경을 제시하고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시설의 배치로서 환경과파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전용의 다양한 대규모 외부공간 조성에는 삶의 질 향상,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하며 입체적인 스카이라인, 가로경관의 개방성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연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의 조성하고 대지지형을 이용한 인공지반의 조성으로 효율적 토지이용도모, 외부공간 활용성 극대화 한다.



<그림 1> 상암지구 단지배치도(조감도).

3. 배치계획

단지 배치규모는 1000세대 이상의 슈퍼블럭 지양하고 상암산 주변을 저층, 저밀도로 계획하여 산에 대한 조망, 경관, 소음등을 계획하고 주동의 배치개념으로는 주변의 이미지를 반영, 자연의 흐름에 순응, 입구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인트 주동배치계획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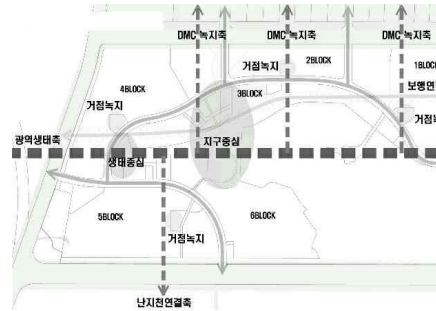
4.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분산, 배치로서 교육시설(중·고등학교), 의료시설은 인지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여 교통분산과 소음규제 한다.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생활공간으로 계획으로는 부대복리시설은 각단지의 중심공간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한다. 이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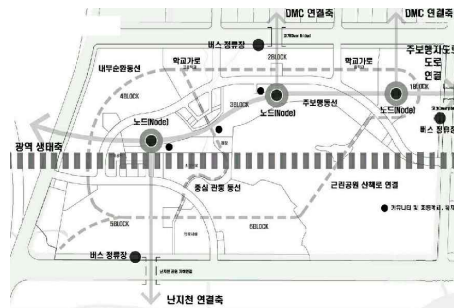
쾌적성, 안전성, 쾌적성을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초등학교, 복지시설은 생태축에 인접하거나 중심에 배치하였다.

5.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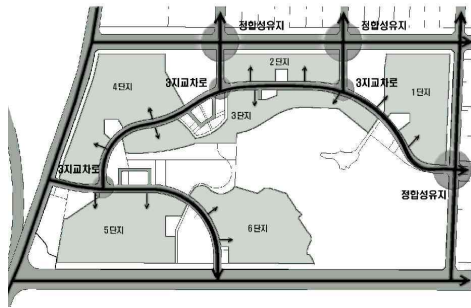
축과도로의 설정은 보행연결축은 광역생태축과 DMC녹지축을 횡단하고 도로선형계획으로 광역생태축과 지구중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보행동선의 이원구성으로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주요보행동선과 내부를 순환하는 보조동선 계획으로 대상지 외부보행동선과의 연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조성으로 보차분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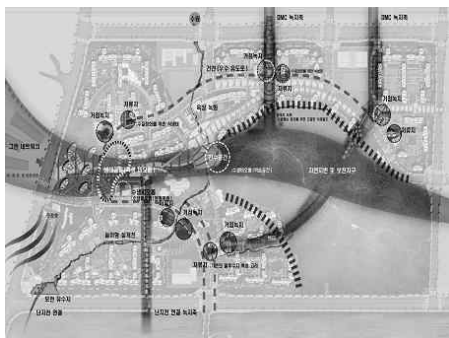


차량동선은 외부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을 구성하고 대상지 진출입시 적합한 회전반경 확보하며 진출입상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회전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각단지로의 접근동선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차량동선을 가급적 억제하는 동시에 외부도로와의 연계성 확보하며 대상지 내부 교차로와의 적정 간격을 고려한 각 단지 진출입구 설치하여 관통하는 차량 최소화한다.



6. 생태계획

광역 그린네트워크 구축-생태축으로는 서울 서부지역의 자연녹지축상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북측의 봉산과 상암산 축과 서측의 대덕산과 상암산을 연결시키는 축을 조성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네트워크 구축하였으며 **단지내부 그린네트워크**는 징검다리 녹지는 대상지내의 기존 녹지 최대한 보존 및 복원(산림, 숲, 구릉지, 동산, 초지)한다. 핵(Core)소생물권은 단지 중심부 중앙녹지대를 형성하며 중앙녹지대를 중심으로 거점녹지와 점적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선형 생태이동통로 내부녹지체계는 생태통로회랑, 실개천, 녹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연결하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외부환경 조성**에는 수생 및 육생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공간과 수공간의 연속성을 주어 생태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며 **수직 그린네트워크 조성**에는 선큰가든(채광/식재)→랜트박스(주동모서리/각세대)→옥상정원(인공테크상부)→수직그린네트워크가 연계 되도록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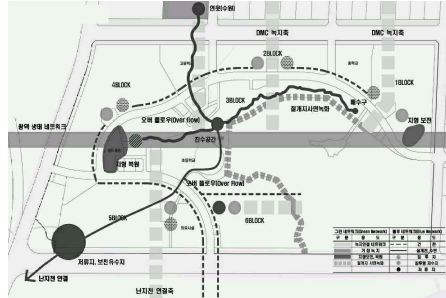


<그림 2> 생태종합계획도.

7.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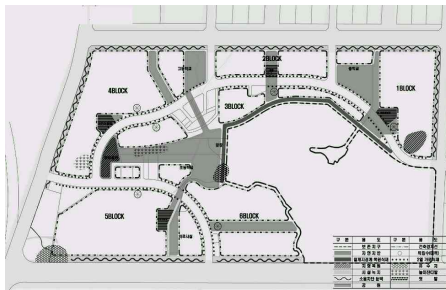
1) 녹지체계도

광역생태축의 연결계획으로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반영한 거점녹지 확보하여 연결하는 점 녹지 설치한다. 보행축을 중심으로 연속된 시퀀스를 형성하여 보행축과 내부공간을 이어주는 Semi-Public Space을 형성한다.



2) 녹지 기본계획도

중앙에 중점녹지를 두고 방사형으로 연계되는 녹지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산림에 대응하는 단지별 거점녹지를 형성하여 단지의외부의 녹지체계(DMC녹지, 난지천 생태공원, 한강, 봉산)와 연계함



8. 가로계획

개방적 가로공간계획으로 보행위주의 가로환경계획으로 가로공간의 네트워크화 하고 주변 가로와의 정합성을 고려, 단절되지 않는 가로공간의 연속성 도모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녹도가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식재계획으로는 자연녹지대와 연결성을 고려한 자연식생 수종식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녹지공간화, 가로수 식수대를 다층구조의 생육공간으로 조성, 생물이동통로와 바람길로서의 기

<표 1> 계획요소.

비오통	종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개천이 모이는 곳을 수생식물 서식처로 조성하고 조육대 및 먹이대를 설치 (소생물이 서식에서 번식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생태적 공간으로 역할)
실개천	우수저류조 및 펌프를 두어 갈수기에도 물을 공급하는 수순환 시스템적용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 활용
산책로	실개천을 따라 산책로를 두고 채소밭과 함께 조성
소동산	주변 공원과의 연결거점으로 봄,가을 등 계절별 테마동산으로 조성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
식물학습원	겨울철에 채소밭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채소밭사이에 자생종,희귀종을 식재하고 명찰을 설치
동물학습원	산책로변에 토끼,닭,오리등 동물사육장을 설치하여 교육 및 학습효과 도모
채소밭	각종채소 생육과정과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며,고속건조 퇴비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

능강화한 생태적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9. 종합계획

단지조성계획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계획을 감안,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도로체계, 너비, 경사도, 선형 등이 밖으로는 DMC 단지, 주변공원, 월드컵 주경기장 등과, 안으로는 학교, 의료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소음,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주변지역 교통망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보행자 동선은 안전을 우선으로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차분리 포장 등으로 전용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주거단지는 근린공원(상암산)과 긴밀한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에 인접한 단지는 연계된 보행자 출입구를 설치하여 많은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하여 외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체식의 함양을 위하여 단지내 적절한 위치에 텃밭, 시민농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중앙광장, 보행자도로 등의 일부 구역에 어린이, 청소년 놀이공간(롤러브레이크, 롤러스케이트 등)을 계획하고, 휴게소는 가능한 한 공공시설(노인정, 관리사무소, 상가 등)주변 또는 운동장, 유희시설과 연계하였다. 친환경 계획은 주

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의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고 기존의 지형, 지반 등 자연적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에의 부하를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산림생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구축하여 주변공원과의 연계하는 생태통로 등을 고려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존중의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 소생태계(Biotop 또는 biotope) 등을 계획하였다. 우수배수로, 저류시설, 침투시설, 친수공간 등을 연계한 수순환체계 (Blue Network)를 조성하고, 친수공간은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 비위생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지내 텃밭 등은 자연체험 및 학습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되 공간의 활용도, 세대수 등을 고려하고, 토질을 개량하는 등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질이 확보되도록 배치 하였다. 단지내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을 최대화 하였으며 가급적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벽면과 옥상을 녹화하고 아파트 주동 및 부대시설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등을 적극 계획 하였다.

외부공간조경계획으로는 녹화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의 계획을 수립하되 위치와 규모, 재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공지반 상부에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가 가능한 구배(2~3%)로 계획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배치하고 충분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지 출입구는 입구감과 정체성(identity)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생태네트워크 계획으로서 보행네트워크는 오픈스페이스를 통하여 생활녹지와 연계하고 보행환경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네트워크 구축하여 단지전체를 이어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로서 실개천, 녹지, 자전거도로가 어우러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하며 단지 내/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하였다. 물순환네트워크 계획으로 수자원 보호 및 우수를 활용한 물 순환체계 확립하여 상암지구와 주변에 걸친 생태조사와 현황분석에 의한 수공간체계를 구성하고 남아 있는 물길을 토대로 복원 즉 실개천을 거쳐 단지내 친수공간을 거쳐 난지천으로 네트워크체계를 고려하였다. 실개천의 폭원은 1~3m, 연장 약1.5km로 기존 수계를 따라 조성하고 공간의 특성에 따라 자연형과 친수형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갈수기에는 자갈밭 산책로로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갈수기에는 잔디밭과 어린이 공원으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린네트워크계획으로 모든 녹지가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상암산-단지와연계)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네트워크 구축하며 기존산림에 대응하는 단지별 거점녹지 형성하고 단지외부 DMC, 난지천공원, 한강, 봉산의 녹지체계와 연계 하였다.

V. 결 론

확장과 개발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근대화 과정은 택지개발은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개발행위로 만들어 왔다. 이러

한 환경에 대한 물이해로 인한 부작용에 반하여 환경공생의 중요성이 새천년의 화두로 등장하였고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이런 경향을 현실화하는 생태신도시의 전형을 구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국제현상공모와 마스터아키텍트 개념을 도입한 현상설계를 상암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해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 인간친화, 경관친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보행네트워크**는 오픈스페이스를 통하여 생활녹지와 연계하고 보행환경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네트워크 구축하여 단지전체를 이어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물순환네트워크**로는 수자원 보호 및 우수를 활용한 물 순환체계 확립하여 상암지구와 주변에 걸친 생태조사와 현황분석에 의한 수공간체계를 구성하고 남아 있는 물길을 토대로 복원 즉 실개천을 거쳐 단지내 친수공간을 거쳐 난지천으로 네트워크체계를 고려하였다. **그린네트워크계획**으로 모든 녹지가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상암산-단지와연계)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네트워크로 기존산림에 대응하는 단지별 거점녹지를 형성하고 단지외부 DMC, 난지천공원, 한강, 봉산의 녹지체계와 연계 하였다. 이런 계획을 통해 상암지역을 설계공모단계부터 **자연, 사람, 기술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로 설정하였고 “관문도시”, “정보도시”, “생태도시”로 서울의 미래 새천년 부도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장기적 계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암 새천년 신도시 계획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부정적인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새천년 신도시의 미래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상암 새천년 신도시 계획이 궁극의 목적에 부합하여 실현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설계자 및 시공자의 역량과 지속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된 시민의 참여의식이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상암3공구 현상 설계지
침서.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000. 상암 새천년 신도
시 기본계획보고서.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002. 상암3공구 설계경기
자료집(Ⅰ,Ⅱ,Ⅲ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5. 환경보전형 주거단
지 개발에 관한 연구, pp164.
- 주택공사. 1996.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
에 관한 연구, pp91-96.

接受 2003年 11月 26日